

# 송순 한시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백숙아\*

## <차 례>

1. 머리말
2. 송순 한시 연구의 현황
3. 연구의 과제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송순의 한시 연구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살핀 글이다. 국문시가를 대표로 하는 「俛仰亭歌」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기존의 논의를 계승하면서 더불어 송순 한시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기존의 한시 연구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송순 한시의 경향은 자연을 소재로 한 논의를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창작된 것, 둘째 자연에서 ‘道’의 발현을 읊은 것, 셋째 자연 속에 누정과 기행을 담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연시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輓詩를 비롯하여 이별시와 교유시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송순 한시 연구에 있어 주제별 분류에 따른 각 작품의 문학적 의미 파악과, 미적 특성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의 자연 소재 한시에 나타난 ‘道’의 발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道’의 발현이 드러난 작품들은 주로 자연 소재나 사회비판적 한시 등에서 추출할 수 있었기에, 그 의미에 대해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각각의 한시 작

\* 순천대학교

품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그 성격과 미의식의 면모를 적절히 지적해내는 작업이 요구된다. 다음은 기행시·누정시 등에 대한 주제별 분류에 따른 논의의 필요성을 살폈다. 그리고 자연시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만시를 비롯한 이별시와 교유시에 대한 논의가 빈약하기에 이에 대한 관심의 환기가 요구된다고 여겨진다. 아직까지 송순의 만시나 이별시의 경우엔 따로 논의된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간혹 자연 소재의 시나 교유의 시에 포함되어 다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이러한 실정에 대하여 연구자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다양한 자료의 확보를 통해서 꾸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송순 한시 연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반성적 모색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그의 작품에 대한 관심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송순, 한시, 자연시, 면앙정가, 누정시, 기행시, 도의 발현, 이별시, 교유시, 사회시

## 1. 머리말

俛仰 宋純(1493~1582)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자료의 발굴 및 소개와 함께 다양한 각도로 진행되어, 폭과 깊이에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송순 문학에 대한 초창기의 연구들은 주로 국문시가 분야에 집중되었다. 이는 「俛仰亭歌」가 국문학 연구 초기부터 중요한 작품으로 다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작품이 송순 문학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俛仰亭歌」는 조선 전기 시가사의 특징적인 면모로 설명되고 있는 ‘江湖歌道’의 한 축으로 설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의미로 작품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제출되었다.<sup>1)</sup>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연구 내용이 소략

한 작품을 소개하거나 해제의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를 지나서 작품연구가 심화되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김동욱<sup>2)</sup>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俛仰亭歌」 또한 그를 통해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되었다. 이후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 작품을 중심으로 송순 문학에 대한 나름의 연구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송순 문학의 초기 연구가 유독 「俛仰亭歌」에 집중되었던 원인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芝峯類說』과 『遣閑雜錄』에 「俛仰亭歌」는 순탄하고 윤택하여 유창하기 그지없기 때문으로, 송순의 가곡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작품이라고 찬탄하고 있다.<sup>3)</sup> 그만큼 「俛仰亭歌」의 작품성이나 문학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었으며, 특히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송순의 시조 작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이병기<sup>4)</sup>와 조윤제<sup>5)</sup>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시조 형식으로 전해지는 송순의 국문시는 현전하지 않으며, 그의 문집에 漢譯歌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는 작품 원사 및 작자 확인의 예비적 단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정익섭<sup>6)</sup>에 이르러서야 시조 작품의 원본 탐색과 함께 주제에 따른 논의가 진행 되었다.

이어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그동안 미진했던 문헌적 전거에 대한 재검토와, 각 작품의 제작 배경 및 소재와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시도되었다.<sup>7)</sup> 그러나 여전히 송순의 시조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지 못한

- 
- 1) 이병기, 「송강가사의 연구(其一)」, 『진단학보』 4호, 1936; 조윤제, 『조선시가사강』, 동광당서점, 1937; 이재수, 「면양정송순-그의 문학시고」, 『사상계』 8월호, 1959; 이병기는 송강가사를 연구하면서 「풍상가」와 「면양정단가」, 「잘새가」를 송순의 작품으로 보았다. 조윤제는 송순을 이현보와 더불어 강호가도의 선창자라 칭했다. 이재수는 송강가사에 혼재되어 실려 있는 시조 중 일부를 송순의 작품으로 논의했다.
  - 2) 김동욱, 「면양정가사 소개 및 해설」, 『문학춘추』, 제11권 제3호, 문학춘추사, 1964; 「임난전후 가사연구」, 『진단학보』 25-27집 합병호, 진단학회, 1964.
  - 3) 정익섭, 『개교 호남가단 연구』, 민문고, 1975, 178쪽.
  - 4) 이병기, 위의 논문.
  - 5) 조윤제, 위의 책.
  - 6) 정익섭, 위의 책.

것은 가사 작품인 「俛仰亭歌」가 차지하는 시가사적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sup>8)</sup> 이와 함께 한역시의 저자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송순의 시조 문학에 대한 연구가 지닌 현실적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송순의 시조 연구는 이러한 과제들에 대하여 보다 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의 문학작품 중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는 한시의 경우, 초기에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sup>9)</sup>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 이종건<sup>10)</sup>을 시작으로 학계에서는 송순의 한시연구에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어서 1990년대에 들어 그의 문집이 국역본<sup>11)</sup>으로 발간되면서 한시분야에 대한 연구는 더욱 탄력을 받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왔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기초적인 연구 과정을 넘어 송순 한시의 표현적 특징과 주제 연구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sup>12)</sup> 최근에는 「俛仰亭三

7) 이종건, 「송순의 시가론」,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송순 시가의 풍월」, 『국제어문』2집, 국제대학 국어국문학과, 1981; 『면양정 송순연구』, 개문사, 1982;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1998, 298쪽~299쪽; 김성기, 「면양정 송순의 시가문학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이종건에 이르러 송순의 작품 전체를 개략적으로 살핀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논의가 다른 연구와 특이한 점은 송순 시조를 자연예찬과 세태한탄으로 볼 수 있다. 박준규는 근세 한국 문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주역들은 대부분 호남 출신이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임억령, 고경명, 기대승, 정철, 김인후, 박순, 김성원, 김윤제, 양산보 등 면양정시단의 주요 인물들의 시회 활동으로 성산시단이 더불어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그러므로 면양정시단과 성산시단은 호남시단을 발흥시킨 쌍벽의 무대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근세문학 발전의 중요 계기가 되었음을 언급했다.

8) 김신중, 「송순 시조의 전승 양상과 문학사적 의미」, 『고시가연구』4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10쪽.

9) 송순 문학작품 연구가 이렇듯 편향되어 이루어지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이 그의 가사문학이나 시조문학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문집이 번역 되어있지 않아 논의의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따랐던 탓으로 여겨진다.

10) 이종건, 『면양정 송순연구』, 개문사, 1982; 김혈조, 「면양정 송순의 서사적 한시의 이해」, 『민족문화논총』2·3집, 영남대학교 1982; 김기도, 『송순의 한시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윤해희, 『면양정 송순의 한시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11) 송순, 『국역면양집』, 담양문화원, 상권(1권~4권), 1995, 下권(5권~7권), 1996.

12) 주뢰, 「송순 한시의 표현적 특징과 주제 연구」,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十詠」의 작시법 중국의 「瀟湘八景」과 관련한 비교문학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문화콘텐츠로써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 이르렀다.<sup>13)</sup> 이처럼 다양한 연구 경향을 거치면서 송순문학의 연구는 좀 더 넓은 지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한시가 송순의 문학작품 중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그 동안의 성과물들을 검토하면서 송순 한시 문학의 특징에 대한 논의들을 먼저 점검하고자 한다. 나아가 한시를 다룬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미처 다루어지지 못한 국면을 파악하고 새로운 과제와 전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송순 한시에 드러난 주제와 미적 특성을 아울러 살피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과제에 대한 인식의 시작으로 송순 한시에 관련된 연구 성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그의 문학세계의 실체에 대해 보다 진전된 논의를 펼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반성적 모색을 하고자 한다.

## 2. 송순 한시 연구의 현황

그동안 송순의 문학을 고찰할 때 국문시가 위주로 다루어 왔으나, 한시를 통한 접근도 결코 경시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송순의 시가를 고찰하는 데에 한시의 비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의 한시는 약 560여 수로 파악되는데 이 중에서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sup>14)</sup> 이러한 까닭은 주변경관이 아름다운 담양에 면양정을 건축하

이 논의에서는 송순 한시의 표현적 특징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주제 연구를 보였는데, 주제 연구의 경우 결여된 부분이 발생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총체적인 주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다.

13) 임준성, 「면양정 삼십영과 문화콘텐츠 활용」, 『우리말글』 제56집, 우리말글학회, 2012.

고 그곳에서 정착해 있는 동안 지은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여겨진다. 따라서 송순 한시 연구는 자연 소재의 작품들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송순이 살았던 시기는 사화 등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문인들이 현실 정치를 떠나 자연 속에서 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들은 자연에 머물면서 심신을 수양하고, 시문을 짓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은 결과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연미의 발견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송순은 이러한 시대와 사회의 여건을 수용하면서 그의 시문을 자연과 접합시켰다. 그의 삶과 철학의 바탕은 어디까지나 孔孟을 따르는 儒者요 선비였다. 그러므로 송순의 자연도 어디까지나 유학자로서 현실 저편에 있는 강호가 문학의 주된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송순의 자연시는 주로 治人の 직에서 벗어나서 창작했던 시였으며, 그에게 고향인 담양은 자연의 공간이고 자연시의 창작공간이기도 했다.<sup>15)</sup> 이는 그가 때때로 감흥이 일어나서 시상이 잡히는 경우, 글귀를 읊었으니 그의 ‘자연미의 발견’은 막연한 공간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국토 산하의 아름다움이며, 향토적 정조에 연결되는 것이다.<sup>16)</sup> 그의 문학에 드러난 자연의 의미를 탐구한 연구들을 통해 한시에 드러난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송순 한시 중에 자연을 소재로 한 연구 경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필 수 있겠다. 먼저 순수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여 창작된 작품을 논의한 경우이다.<sup>17)</sup> 송순 한시에 나타난 새의 이미지를 담은 작품들을 통해

14) 송순의 한시는 5언 절구 43수, 5언 율시 97수, 5언 배율 4수, 7언 절구 206수, 7언 율시 192수, 7언 배율이 4수, 고체시가 15수 등 560수로 집계된다. 박준규, 위의 책, 286쪽 참조.

15) 김성기, 「면양정 송순의 자연시 연구」, 『남명학연구』 10집, 경상대학교남명학연구소, 2000, 15쪽.

16) 임형택, 「16세기 광라 지역의 사림층과 송순의 시세계」 『고전시가의 이념과 표상』, 1991, 429쪽.

17) 윤해희, 「면양정 송순의 한시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이상희, 「송순의 시가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노인숙, 「송순 시가연구」, 『청람어문학』 4집, 청람어문학회, 1991.

유학자의 자연관을 논하기도 했으며,<sup>18)</sup> 새, 꽃, 물, 달, 바람의 이미지를 담은 작품들을 통해 송순 한시에 드러난 자연현상을 살폈다.<sup>19)</sup> 새와 인물의 형상을 통해 송순 한시의 특성을 검토하기도 하였다.<sup>20)</sup> 송순의 한시에 나타난 자연물은 때로는 사회비판적인 역할로, 또는 서정적 자연물로 해석되기도 한다. 기존의 송순 한시에 나타난 자연물은 달관의 경지를 이루어 시적 효과를 한층 더 살리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자연 현상을 종류에 따라 주제별 연구를 이룬 점은 송순 한시의 연구 발전에 또 하나의 의의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 매개물을 이용해 창작된 송순의 한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미적 특성을 살피는 일은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다음은 자연현상을 논한 작품에서 ‘道’의 발현을 찾고, 그에 따른 심상을 읊은 연구들을 들 수 있겠다.<sup>21)</sup> 송순이 면양정을 창건하고 그 주위의 景概를 「俛仰亭三言歌」와 「俛仰亭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래한 바 있다. 그의 자연은 하나만의 풍류를 대상으로 한 표현이 아니었다. 선비로서 ‘도’의 대상으로 자연을 마주했던 것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탐미한다든가 이에 풍류를 곁들여 놓고 즐기는 것은 조선조의 양반사회에 있어선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송순의 자연관은 이 경지를 넘어 자연의 혼과 소리에 자아를 밀착시켜, 이른바 선경의 경지를 개척했던 것이다. 이것은 송순 자연에 대한 ‘道’의 표현을 말하는 것이며, 그의 한시엔 이런 면모가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정익섭은 자연에서 발현되는 송순이 지닌 ‘道’

18) 노인숙, 위의 논문.

19) 윤혜희, 위의 논문.

20) 김순희, 위의 논문.

21) 김기탁, 「면양정가의 이해」, 『영남어문학』13, 영남어문학회, 1980; 정익섭, 『개교 호남가단 연구』, 민문고, 1989; 노인숙, 「송순시가연구」, 『청람어문학』제4호, 청람어문학회, 1991, 87쪽; 이재원, 「면양정 송순의 한시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임준성, 「면양정 삼십영과 문화콘텐츠 활용」, 『우리말글』제56집, 우리말글학회, 2012; 최한선, 「면양정 송순의 한시」, 『고시가연구』제4집, 한국고시가학회, 1997, 22~24쪽.

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논의하였다.<sup>22)</sup> 앞으로는 송순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道’의 실상에 대하여, 기존 성과물들의 총체적인 고찰과 새로운 자료들을 확보하여 더 깊이 있는 논의가 따라야할 것이다.

이어서 누정과 기행을 주제로 한 연구 경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sup>23)</sup> 송순의 문학작품에서 누정을 주제로 한 작품을 살펴보면, 한시 7편 14수, 가사 「俛仰亭歌」 1편, 시조 「俛仰亭短歌」 7수, 「俛仰亭雜歌」 2수 등이 전한다. 송순의 문학에서 누정을 다룬 작품이 적지 않게 창작되었으며, 이것이 그의 문학이 지닌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경영하던 면양정을 무대로 하여 창작된 한시만 해도 상당수에 이른다. ‘면양정’이라는 정자의 이름이 붙은 그의 한시는 10편 24수에 이르며, 대부분 41세 이후에 창작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sup>24)</sup> 그의 한시에 등장한 누정들이 작품 창작의 주요 무대였으며, ‘면양정’ 이외에도 그가 방문했던 누정이 70여 군데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누정을 다룬 문학 작품이 많은 이유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16세기는 지방에 따라 토착적 사림층이 형성됨으로써 문화 창조의 중심이 중앙의 관학으로부터 향촌의 사림으로 옮겨지는 시기였다. 이 새로운 문화 창조의 구심점으로 하나는 학당과 서원, 다른 하나는 누정이 발달하였다. 이 중에서 학당과 서원은 학문교육의 전당이 되었으며, 누정은 문예의 산실이 되었다. 요컨대 이러한 측면에서 그를 포함한 문인들에 의해서 정자를 다룬 적지 않은 작품들이 산출되었던 것이다.<sup>25)</sup> 특히 송순은 면양정가단 뿐만 아니라 호남가단의 주요 인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자연미는 전형적인 호남문학의 특색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송순은 누정에 대한 한시를 24수나 창작하기에 이르렀다.

박준규는 누정을 상층지배계층의 문화가 구체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장

22) 정익섭, 위의 책, 189쪽.

23) 박준규, 위의 책, 최한선, 위의 논문,

24) 김성기, 「면양정 송순의 자연시 연구」, 『남명학연구』 제10집, 경상대학교남명학연구소, 2000. 17쪽.

25) 임형택, 위의 논문, 421쪽.

소로 파악했다.<sup>26)</sup> 따라서 누정을 짓고 시교를 하며 제자를 육성하던 선비들은 대부분 본래 향촌 출신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그들 중에는 귀향을 오거나 친인척의 연고로 말미암아 담양에 누정을 짓고, 그곳에 모여들어 시단을 이루고, 정착하여 살게 된 경우들이 많았다. 송순의 면양정을 주제로 창작된 한시로 「俛仰亭」, 「次俛仰亭韻二首」, 「俛仰亭題詠」, 「次沖和弟俛仰亭絕句四首」, 「復次俛仰亭韻三首」 등이 있다. 이 외에도 『俛仰集』의 「俛仰亭題詠海東雜錄」에 오른 사람이 30여 명에 이른다. 이 중에서 임억령, 김인후, 고경명, 박순, 이홍남 등은 면양정 30경의 시경을 노래한 「俛仰亭三十詠」의 제작과 관련된 사람들이다.<sup>27)</sup> 임준성은 호남의 대표적인 지역문화로 누정문화를 들었으며, 면양정을 호남 정자의 1번지로 꼽는<sup>28)</sup> 등 면양정이 차지하는 호남가단의 높은 비중을 강조하였다. 결국 면양정의 수려한 경관을 기반으로 송순을 위시한 많은 시인들이 이곳에 모여들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면양정시단이 형성되고 그곳을 중심으로 문학의 꽃을 피우게 되었던 것이다.

송순의 기행시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의 기행시들은 기행을 통한 승경에의 감탄과 객려에서 느끼는 회포 및 여러 인물과의 교류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인간애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sup>29)</sup> 그의 한시 중에는 중국으로 떠나는 동료 사신들에게 보낸 편지나 시 작품이 상당 부분 발견된다. 이들 작품 중에는 아직까지 미개척 분야라고 할 만큼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다.

박준규는 송순의 경우, 유달리 작시를 좋아하여 많은 사람들과 시적 사귀를 가진 것으로 논의했다. 한때 松都의 朴淵瀑布와 江原道の 觀音窟, 義相臺, 大興洞, 興王洞 등 명승지를 두루 유람하며, 申潛, 成守琛, 尹衢, 趙

26) 박준규, 「전남지역 누정 조사 연구」, 『전남개발』3호, 전남지역개발협의회, 1984, 22쪽.

27)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298쪽.

28) 임준성, 위의 논문, 469쪽.

29) 최한선, 위의 논문, 2쪽.

士秀, 周世鵬, 沈守慶, 元虎燮, 鄭惟吉 등 당대의 명류들과 或詩或書하며 서로 노닐었다고<sup>30)</sup> 전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유람을 통해 송순이 많은 창작활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면밀한 자료 검토와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연구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송순 한시에서 別離의 시가 적지 않은 수요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만시를 비롯해 別恨을 주제로 한 우수작이 상당 수 발견된다. 주지한 대로 만시를 합한 송별의 시는 60여 수에 이른다. 대개 지기지우와의 이별을 읊은 내용들이다. 예를 들면 ‘동년의 이인이 밀양 땅으로 부임해 감을 전송하면서’,<sup>31)</sup> 또는 ‘임봉이 북도평사가 되어 떠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시를 지어 별회를 편다.’<sup>32)</sup> 식의 내용으로 대개 왕명을 받들고 멀리 떠나는 이와 별한 서회로 되어 있다.<sup>33)</sup> 따라서 송순의 한시작품 중 만시를 포함한 이별의 시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송순의 국문시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계가 한시에서 심오하게 추구되고 있기도 하다. 사회 비판을 다룬 일련의 작품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 작품들에서는 당면한 사회의 현실문제가 시적으로 내면화된 감흥, 다시 말하여 암울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우의를 토로한 내용이다. 작자의 예리한 사회의식을 내용으로 한 이른바 사회시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이는 면양정 문학의 특색을 논하는데,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흥미로운 주제라 하겠다. 「聞丐歌」, 「啄木歎」, 「病鶴」, 「田家怨」, 「聞隣家哭」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대부분 서사성이 강한 이야기 구조로 창작되었으며, 장편의 서사시라는 데에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게 한다.<sup>34)</sup> 임형택은 송순을 서사시적 상황의 발전을 선각적으로 포착한 시인으로 꼽았다. 서사시적 상황의 발전을 계기로 먼저 조선 사회의 기본적 모순의 심화로 파

30) 송순, 위의 책 5권, 「기촌선생송공가장」, 12장.

31) 송순, 위의 책, 1권, 6장, 「送李同年應物認赴密陽」.

32) 위의 책, 같은 곳, 「聞翰林出爲北道評事仍作詩敘別」.

33) 박준규, 위의 책, 289~290쪽.

34) 박준규, 위의 책, 290쪽.

악했고, 다른 하나는 거기에 민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라 여겼다.

송순의 寓言的 한시인 「啄木歎」<sup>35)</sup>은 천년 묵은 높다란 나무가 하루아침에 생기를 잃고 죽어 가는데 원인은 벌레가 속을 파먹기 때문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새 한 마리가 거목의 속을 파먹는 벌레들을 제거하기 위해 진력하는 정경을 묘사한 대목이다. 이 새는 거목을 살려내기 위해 입부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 물가의 기러기나 산의 비둘기는 기껏 저 자신의 이기적 삶에 급급하고 있다. 이 기러기나 비둘기가 누구를 견주고 있지는 분명치 않으나, 일반적으로 무위도식하는 자를 가리킬 것이다. 당시 사회에서 위로 아래로 못된 벌레들처럼 나라를 갉아먹어 병들게 하므로 딱따구리가 절실히 요망되는 시대로 보았다. ‘溪山風流’<sup>36)</sup>가 사대부의 생활의식의 반영이듯,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 또한 사대부의 기본 자세라 할 수 있다. 송순 스스로 ‘딱따구리의 정신’을 본받고자 했던 바, 병든 나라를 걱정하고 어려운 백성을 생각하는 것을 자기의 소임으로 각성하고 있었다. 나름으로 주체적 자세와 시각으로 ‘서사시적 상황의 발전’을 예민하게 포착하였던 셈이다.<sup>37)</sup>

최재남은 송순이 남긴 몇 편의 사회비판적 한시에 대한 정확한 재평가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송순의 일련의 작품들은 구체적인 현실의 삶에 바탕을 두고 지은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정치적 입지 등에서 내면적

35) 송순, 위의 책 1권, 千年喬木大蔽牛 根深九泉杖擎天 一朝慘慘少年意 鄉里尋常皆莫憐 老夫爲惜棟樑材 撫摩終日心悵悵 有鳥急從何處來 剝剝啄啄鳴其顛 啄有長兮瓜爲利 腹心老蠹期盡穿 南枝北枝復西枝 千瘡萬穴皮無全 蟲猶深避力愈微 只見段血流口邊 水有鴻雁山有鳩 飲啄不過謀自便 精衛填海爲報讐 杜鵑啼血悲國遷 千尋枯木本無情 捐身除害抑何緣 啄傷瓜脫羽亦殘 耐死效誠誰汝賢 古今人事盡如此 吁嗟汝身何獨然

36) 임형택, 위의 논문, 427쪽, 시내와 뫼-계산은 비단 같이 곱고 정자며 가옥이 별처럼 박힌 사이로 트랙을 구분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풍월을 공유하여 즐기는 현장은 그곳의 누정인데, 누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풍류운사가 그 즐기는 내용이다. 향촌사회에서 발달했던바 향회,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회는 그 자체가 사교적인 모임이면서 풍류운사의 성격을 다분히 띠고 있었다.

37) 임형택, 위의 논문, 428쪽.

갈등을 겪고 있었던 시기에 이를 추스르는 방향으로 독서체험을 의식적으로 반영하여 작시한 경우로 파악했다.<sup>38)</sup> 그리고 송순이 지니고 있었던 애민정신과 현실 비판 정신은 주체적 인간의 출현 요인과 그들의 행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sup>39)</sup>

이상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송순의 사회 비판적 한시는 여러 연구자들이 비교적 많은 관심을 기울인 작품이다. 이러한 연구들은<sup>40)</sup> 송순의 서사시적 발전을 진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토대로 그의 내면을 성찰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작품들에 대하여 더욱 진전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송순 한시에 대하여 이뤄진 다양한 논의들을 정리해 보았다.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대체적으로 그의 문학을 대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누정시와 기행시의 경우에는 자연 주제의 한시 속에 포함되어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 효과가 적지 않은 만큼 개별 주제로 분리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시와 이별시, 그리고 교유시의 경우에도, 작가가 살았던 당시의 사회 현실이나 사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 송순의 한시들에 대해서는 개별 작품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별로 분류하여 논의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그의 한시들을 대상으로 주제별 분류에 따른 개별 작품의 미적 특성 등에 대한 성찰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8) 최재남, 「송순 연구의 과제와 전망」, 『고시가연구』제4집, 1997, 242쪽.

39) 최한선, 위의 논문, 28쪽.

40) 안동현, 「송순의 시가문학 연구」, 충북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윤해희, 위의 논문. 김혈조, 「면양정 송순의 서사적 한시의 이해」, 『민족문화논총』2·3집, 영남대학교 1982. 이재원, 위의 논문. 김순희, 위의 논문.

### 3. 연구의 과제

앞서 연구 현황에서 밝혔듯이 송순 한시는 그의 문학작품 중에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꾸준한 연구의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 동안의 연구 작업을 통해서 송순 한시의 기본적인 면모를 확인하고, 그것의 위상을 다소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송순의 한시를 연구하는데 있어, 개별적 주제에 내포된 미적 특성을 살피는 작업이 우선이라고 여겨진다. 나아가 각 주제별 한시의 명확한 문학적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송순 문학에서 당대 사림과 문학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규범화된 정서와 기성적 구호, 도학자연하는 상투성에서 벗어난 작품들이 상당수 발견된다. 그 이유는 풍류를 즐기던 호남인다운 그의 기질과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오랜 동안 정계 생활을 하였지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풍류적 서정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sup>41)</sup>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은 여러 연구자들이 관심을 모으는 작품으로, 송순이 면앙정을 창건하고 주변의 풍광과 삶의 지침으로 여기며 창작한 「俛仰亭三言歌」이다. 이를 통해 그의 내면적 기질을 엿볼 수 있겠다.

俛有地 仰有天  
亭其中 興浩然  
招風月 搥山川  
扶藜杖 送百年

굽어보니 땅이요 우러르니 하늘이라  
그 가운데 정자를 지어 호연지기 일어나고  
풍월을 불러들이고 산천은 껴안고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한평생을 보내리라<sup>42)</sup>

이 작품은 연구자들의 시각에 따라서 자연현상을 읊은 경우로 해석되기도 하고, 도학자적인 풍모로 풀이되기도 한다. 노인숙은 이 시를 ‘처사적 음률과 풍류’로 여겨 자연을 통해 강호 처사로서의 풍류를 읊은 것<sup>43)</sup>

41) 노인숙, 위의 논문, 229쪽.

42) 송순, 위의 책 3권, 235쪽.

으로 보았다.

김성기는 「俛仰亭三言歌」를 俗을 등지고 자연으로 돌아온 세상에 대한 일종의 避世로써 자연을 수용함으로 보았다. 송순은 당시 정권을 잡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김안로, 채무택, 허항 등이 집권한 무도한 세상을 벗어나서 ‘면앙’, 곧 ‘부양’의 깨끗한 세계로 돌아가고자 했다. 송순의 삶은 無道에서 벗어난 깨끗한 삶인 유교적 ‘도’의 추구에 대한 준비로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송순에게 자연은 수기하는 道場이었다. 송순은 부름이 있고 ‘도’가 세상에 행해지면 어느 때나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고 머물렀던 휴식처가 면양정이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송순의 자연은 道·佛과 달리 바라보는 강호의 자연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sup>44)</sup> 이러한 김성기의 해석은 풍류나 ‘도’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그 모두를 수용하는 자연 그 자체를 파악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三言의 짧은 호흡 속에 시상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천지를 아우르는 장대한 기상과 주위의 경물 모두를 이끄는 호연한 흥취에서 정서적 고양감이 감지된다. 그 가운데 자신의 전생을 보내고 싶다는 것은 이러한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동시에 그 고고한 자긍심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다.<sup>45)</sup> 이 작품은 자연을 표상한 시로 풀이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자연을 통한 ‘도’의 발현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송순의 면앙은 맹자 사상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sup>46)</sup> 하늘의 ‘道’를 섬김으로써 선비의 마음을 다잡고자 하는 것이요, 땅의 순리를 좇아 행동하는 바에 거리낌이 없겠다는 다짐과도 같다. 먼저 굽어보고 다시 올려다보는 과정에서 세계는 그 중심이 되고, 두 개의 시선은 자신의 중심을 알려주는 일종의 내재적·심리적 장치가 된다<sup>47)</sup>고 하니, 이야말로 자

43) 노인숙, 위의 논문, 239쪽.

44) 김성기, 「면양정 송순의 자연시 연구」, 『남명학연구』 제10집, 경상대학교남명학연구소, 2000, 18쪽.

45) 박종우, 「16세기 호남 한시의 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24쪽.

46) 권순열, 위의 논문, 81쪽.

신의 道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자연은 우주섭리의 순리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모두를 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김성기나 조태성의 연구에서 이 작품을 순리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48)</sup> 그러므로 이 작품은 송순이 면양정 주변의 경치와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인생관을 담아내고자 ‘道’의 발현을 읊은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우리의 고시가에는 누정을 출입하거나 이를 경영하면서 이와 같은 생활에서의 감회를 형상화한 시들이 적지 않다. 우리는 이를 흔히 누정시 또는 누정제영시라 한다. 제영시라 하면 원래 제목을 정해 놓고 지은 시가를 말한다. 때문에 누정제영시는 주로 누정의 이름을 제목으로 한다.<sup>49)</sup> 조선시대 선비들이 누정을 건립한 목적은 대개 두 경우로 압축되는데,<sup>50)</sup> 시회의 장소였던 누정은 전국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수창한 시편 또한 적지 않다. 송순의 누정시는 기행시와의 긴밀한 관계에 있는 만큼 아울러 살핍으로써 누정시의 실체를 보다 온당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51)</sup> 이러한 성과들을 토대로, 송순의 누정시와 기행시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여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47) 조태성, 「면과 양, 두 개의 시선」, 『고시가연구』 제2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2, 239쪽.

48) 김성기, 「16세기 호남 한시의 한 연구」, 18쪽; 조태성, 위의 논문, 339쪽. 김성기는 송순은 부름이 있고 도가 세상에 행해지면 어느 때나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고 머물렀던 곳이 면양정이다. 조태성은 송순의 면양은 청은 하늘에서 우리름에서 비롯하는 것이니, 하늘의 도를 섬김으로써 선비의 마음을 다잡고자 하는 것이라 했다.

49) 박준규, 「송강 정철의 누정제영고」, 『송강 문학 연구 현황과 전망』, 고요아침, 2013, 147쪽.

50) 최한선, 「석천 임억령 시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38~139쪽. 그 하나는 氣不鬱, 志不滯, 視不壅, 聽不塞 등을 통하여 尊王人, 接賓客, 察時候 할 목적 곧 현실에서의 선정을 베풀고자 함에서 지어진 경우가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와는 달리 현실정치에서 물러나 심성도야의 수단으로 누정이 건립되고 그 속에서는 의리와 명분을 지키기 위한 심성도야는 물론 계산의 풍류까지 결들여진 경우이다.

51) 최한선, 앞의 논문, 23~24쪽.

송순은 사람과 사림에 있어서는 신분의 귀천이나 나이의 老幼를 막론하고 지극정성으로 임하였다. 그의 시세계에서 누정시·기행시와 더불어 많은 편수를 차지하는 것이 사제 간이나 동료, 선후배들과의 교유시인 바, 그만큼 그는 풍류를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또한 사람과 사귀기를 즐겨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sup>52)</sup> 면양정을 짓고 그곳을 창작의 산실로 삼아 많은 시작을 하였으며, 가단을 이루었을 만큼 여러 문인들과의 교유를 해왔던 송순의 교유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면양정의 교유시는 그의 인물됨과 다정다감한 인간애, 풍류남아로서의 호탕한 기상을 드러내는 것, 평범한 일민이고 싶은 소망, 세속에서의 탈피하고픈 심사토로 등이 주종을 두고 있다.<sup>53)</sup> 이는 다음의 「送林判官亨秀赴會寧」에서 볼 수 있다.

英雄自古患多才  
人事誰能盡快哉  
特遣名臣恩荷重  
久違慈念恨難裁  
秋風昨夜驚庭樹  
鞍馬明朝赴虜臺  
草詔在今推手  
鳳池應得早歸來

예부터 영웅은 재주 많아 걱정인데  
어느 누가 인사에 만족하겠는가  
이름난 신하에게 특별히 보낸 은혜 귀중하나  
오래도록 어머니 못 뵈는 한이 더 많다네  
어젯밤 가을바람 뜨락의 나무 흔드는데  
내일 아침 말 타고 오랑캐 땅으로 간다네  
조서를 꾸미는데 그대 숨씨 필요할진대  
봉지에 아마도 일찍 돌아오겠지<sup>54)</sup>

송순이 승지로 있을 당시 회령판관으로 떠나는 임형수를 위로하면서 지어준 시이다. 이별을 나누는 자리에서 오랜 동안 어머니를 뵈지 못할 벗에게 마치 친 형님이 막내아우를 멀리 보내는 심정으로 작가의 마음을 담았다. 앞으로의 연구는 교유시에서도 개별 주제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더욱 다양한 시각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송순의 한시 중에 만시는 상당한 작품이 발견된다. 따라서 만시를 별도로 분류하여 이별

52) 김진영, 「송순의 문학세계」, 『고시가연구』 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7, 48쪽.

53) 최한선, 위의 논문, 135쪽.

54) 송순, 『면양집』, 한국문집총간 26집, 한국고전번역원, 199쪽.

주체의 작품과 비교하고 각각의 특성을 분석해 보는 작업이 뒤따랐을 때, 비로소 송순의 이별시 연구가 새롭고 다양한 방법으로의 확장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다음은 송순이 남긴 몇 편의 사회비판적 한시에 대한 정확한 재평가의 문제에 대해서이다. 「聞丐歌」를 비롯하여 「木假山」, 「枯竹歌」, 「詠鷗」, 「聞隣家哭」, 「啄木歎」 등은 구체적인 현실의 삶에 바탕을 두고 지은 작품 이라기보다는 독서당에서 賜家讀書하는 동안에 의식을 앞세워서 지은 사회시로 평가해야 할 듯하다. 왜냐하면 이 시편들은 「詠思 己丑讀書堂朔啓」 다음에 편성되어 있고, 「己丑十月 自南鄉投宿廣程驛」의 앞에 수록되어 있어서 기축년인 중종 24년(1529) 독서당에서 사가독서하는 동안 지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품들은 당시 정치적 입지 등에서 내면적 갈등을 겪고 있었던 시기에 자신의 내면을 추스르는 방향으로 독서체험을 의식적으로 작시한 것으로 추정된다.<sup>55)</sup> 이러한 판단이 기존 자료들에 내재된 정황들에 의한 것이긴 하나, 지금까지 송순의 사회시는 대부분 서사시적 구조로 엮어진 장편이며 당시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표현한 작품들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특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 「病鶴」의 경우에서도 살필 수 있다. 이 작품은 ‘道’의 발현, 사회풍자, 풍류 등 다양한 해석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豈知塵土裏	속세에 있을 줄 어찌 알았으리
得見九臯禽	깊은 못에서 학을 만날 줄이야
身上無全羽	이 몸에 온전한 날개가 없어
雲邊有遠心	구름 가까이 가고픈 간절한 마음이네
當行涉長步	마땅히 먼 걸음 떠나야 하는데
欲喚失淸吟	울고자 해도 맑은 소리 없었다네
坐受群鷄侮	못답의 모멸을 앓은 채로 받는데
相看淚濕襟	서로 바라보며 눈물로 소매 적시네 <sup>56)</sup>

55) 최재남, 「송순 연구의 과제와 전망」, 『고시가연구』 1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7, 242쪽.

이 시는 고고한 학이 나래를 마음껏 펴지 못하고 오히려 못한 닭에게 업신여김 당함을 슬퍼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학은 분명 작가인 송순 자신과 당시 사림들일 것이다. 이재원은 이 작품에 대해서 균계일학의 존재가 균계소학의 존재로 자신의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통해 나라에 대한 근심을 표현한 도학자적인 시풍<sup>57)</sup>으로 보았다. 송순의 경우 사화의 소용돌이가 그의 시에 음각을 피했고, 이름을 향안에 등재하는 재치가 불합리와 부조화를 담은 풍자와 해학으로 논의되기도 한다.<sup>58)</sup> 이처럼 송순은 사림으로서 관료적인 면과 처사적인 면을 겸비했으며, 때로는 현실의 모순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을 쓰기도 했다. 그는 사림파로서 사회의 모순과 현실의 부조리를 직유적으로 고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사적으로 또는 풍류적으로 수용했다.<sup>59)</sup> 이러한 논의들은 송순의 삶과 연계하여 현실지향 의식을 시적 정서로 해석한 경우들이다. 따라서 같은 작품의 다양한 해석들을 일관된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재해석해봄으로써, 논의의 명확한 맥락을 짚어 내야하는 작업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다음은 자연 소재의 누정을 주제로 창작된 작품으로 보았던 「俛仰亭」의 예를 들어보자. 임형택은 이 작품을 사회성이 심오하게 담긴 작품으로 보았다.<sup>60)</sup>

百里群山擁野平  
臨溪茅屋幸初成  
此身不繫蒼生望  
宜與沙鷗結好盟

백리 안의 뭇산이 너른 들판 껴안아  
시냇가 가까이에 텃집 이루었네  
걸림없는 이몸 보통 사람되길 바랐는데  
마땅히 갈매기와 함께 좋은 짝 맺었네<sup>61)</sup>

56) 송순, 『면양집』, 한국문집총간 26집, 한국고전번역원, 190쪽.

57) 이재원, 위의 논문, 21쪽.

58) 이종건, 「송순의 시가론」,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79, 39쪽.

59) 경환철, 「면양정 시가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3, 12쪽.

60) 임형택, 위의 논문, 425쪽.

61) 송순, 『면양집』, 한국문집총간 26집, 한국고전번역원, 198쪽.

이 작품은 송순이 41세 때에 면양정을 건립하고 창작한 것이다. 1·2구는 면양정의 경치를 읊었으며 3구에서는 벼슬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온 자유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정치에서 물러나거나 또는 사회적 핍박을 받게 되면 자연을 찾아 안식처로 삼았다. 송순 역시 면양정을 창건하고 자연을 벗 삼아 유유자적하며 지내려 했었다는 것이 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구에서는 모래 위의 갈매기와 여생의 벗으로 살 것을 맹세함으로써 면양정의 주변 풍광을 그림처럼 묘사해 보이고 있다. 이 시는 송순의 문예창작 산실이며 교유 장소로 삼았던 면양정을 제목으로 붙인 만큼, 그의 대표적 누정제영시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에서 자기의 몸이 ‘창생의 원망’에 매이지 않았다는 함은 관직에서 떠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백구와 더불어 좋은 짝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요컨대 ‘溪山’의 한가로움은 벼슬을 떠나 돌아온 처지에서 얻어진 것인데 그 창조 주체는 기본적으로 창생의 원망을 몸에 짊어진 것으로 의식하고 있다. 석천 임억령이 송순을 찾아보고 지은 시에 “한 조각 옛 성현의 뜻 아직 시험하지 못했거늘 원컨대 선생께 나아가 치민의 방도 물어 보리”라고 하였던 바, 민생의 문제가 송순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sup>62)</sup> 「俛仰亭」은 그가 창작한 누정을 읊은 작품으로 여타 연구자들이 누정시나 자연시에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임형택은 사회적 현실을 내포한 작품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송순의 삶과 사상적인 부분을 깊이 있게 성찰하여 더욱 객관성 있는 시각으로 작품 해석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송순의 한시 연구에 있어 주제별 분류에 대한 의문에 대하여 각각의 의미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그것이 아무리 잘된 논의라 할지라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송순 한시 연구의 경우에는 단순히 작품의 의미파악과 특성파악의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62) 임형택, 위의 논문, 426쪽.

새로운 주제 규명을 통해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확보하여 설득력 있는 논거의 규명 작업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의 송순 한시에 대한 논의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작가의 문체와 관련지어 각 주제별 분류에 대한 고려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송순 한시 연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반성적 모색이 될 수 있다.

#### 4. 마무리

지금까지 송순의 한시에 대하여 초창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개략적인 연구 현황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연구 실적들도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자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성과들 중에 본 논지와 관련이 된다고 여겨지는 자료들에 집중하여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들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 파생된 송순 한시 연구의 주제별 분류와, 그리고 각 작품의 문학적 해석과 미적 특성에 대하여 종합적인 조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또한 송순 한시 연구는 그 동안 상당한 정도로 발전을 이루어왔음을 살폈다. 여기에서 몇몇 심화된 연구의 천착이 요구되는 바, 그의 자연 소재 한시에 나타난 ‘도’의 발현에 대해 살피는 일이었다. 따라서 송순 한시에서 ‘道’의 발현에 대해 새로운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각각의 한시 작품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그 성격과 미의식의 면모를 적절히 지적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해당 작품의 주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할 경우, 실상과 어긋나는 문제를 도출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작품에 대해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사회비판적 시각의 시를 연구한 경우들은 임형택과 최재남의 논의에 주목하여 살폈다. 임형택의 경우, 「俛仰亭」을 사회성이 심오하게 잠긴 작품으로 해석함으로써 자연시로 해석한 기존 연구들과 다른 면모를 보여줬다. 그리고 최재남의 경우, 송순의 사회시들을 독서당에서 사가독서하는 동안 독서체험을 의식적으로 작시한 것으로 추측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송순의 삶과 연계하여 다양한 해석들을 일관된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재해석해 봄으로서 새로운 시각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가하면 송순의 한시 연구사를 통해 기행시, 누정시 등에 대한 주제별 분류에 따른 논의들을 살폈다. 그의 문학작품에서 누정시를 일러, 박준규는 송순의 문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의 누정문학 성격의 작시가 대다수인 점, 그리고 이는 송순 문학의 한 특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겼다.<sup>63)</sup> 따라서 그가 경영하던 면양정을 무대로 하여 생산한 시가만 해도 상당수에 이르며, 결국 그의 한시에 등장한 누정들이 그 문학에 중심무대가 되었던 만큼 중요한 문제로 여겨야 할 과제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 송순의 문학을 문화콘텐츠와 접목하는 연구경향이 임준성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점은 송순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한편, 최한선은 송순의 누정시가 기행시와 긴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두 주제를 아울러 살핌으로써 누정시의 실체를 보다 온당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sup>64)</sup> 이러한 논의는 송순 한시 작품의 방법론적 다양성과 심화된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는 부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하여 송순의 누정시와 기행시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다양한 관점으로 논거의 새로운 규명 작업을 시도하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

63) 박준규, 위의 책, 289쪽.

64) 최한선, 앞의 논문, 23쪽.

끝으로 송순의 한시 연구사를 검토하던 중, 자연시 다음으로 눈에 자주 띄는 輓詩를 비롯한 이별시와 교유시에 대한 주제가 별로 논의되지 않은 점이다. 아직까지 만시나 이별시의 경우엔 따로 논의된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간혹 자연 소재의 시나 교유의 시에 포함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 또한 연구자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다양한 자료의 확보를 통하여 꾸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송 순, 『면앙집』, 한국문집총간 26집, 한국고전번역원.
- 경환철, 『면앙정 시가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3, 12쪽.
- 권순열, 「면앙 송순의 한시 연구」, 『고시가연구』제31집, 2013, 81쪽.
- 김기도, 『송순의 한시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김기탁, 「면앙정가의 이해」, 『영남어문학』13, 영남어문학회, 1980.
- 김동욱, 「면앙정가사 소개 및 해설」, 『문학춘추』, 제11권 제3호, 문학춘추사, 1964
- \_\_\_\_\_, 「임난전후 가사연구」, 『진단학보』 25-27집 합병호, 진단학회, 1964.
- 김성기, 『면앙정 송순의 시가문학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_\_\_\_\_, 「면앙정가의 가맥에 대한 연구」, 『고시가연구』4집, 한국고시가학회, 1997.
- \_\_\_\_\_, 『면앙 송순 시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8, 17~18쪽.
- \_\_\_\_\_, 「면앙정 송순의 자연시 연구」, 『남명학연구』 제10호, 경상대학교남명학연구소, 2000.
- 김신중, 「송순 시조의 전승 양상과 문학사적 의미」, 『고시가연구』 4집, 한국고시가학회, 1997, 10쪽.
- 김진영, 「송순 문학 세계」, 『고시가연구』 4집, 한국고시가학회, 1997, 48쪽.
- 김학성, 「송순 시가의 시학적 특성」, 『고시가연구』 4집, 한국고시가학회, 1997.
- 김혈조, 「면앙정 송순의 서사적 한시의 이해」, 『민족문화논총』23집, 영남대학교 1982.
- 노인숙, 「송순시가연구」, 『청람어문학』 제4호, 청람어문학회, 2000, 87,

229쪽.

박준규, 「전남 지역 누정 조사 연구」, 『전남개발』3호, 전남지역개발협의회, 1984, 22쪽.

\_\_\_\_\_,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1998, 286~299쪽.

\_\_\_\_\_, 「송강 정철의 누정제영고」, 『송강 문학 연구 현황과 전망』, 고요아침, 2013, 147쪽.

박종우, 『16세기 호남 한시의 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21, 24쪽.

윤해희, 『면양정 송순의 한시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안동현, 『송순의 시가 문학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이병기, 「송강가사의 연구(其一)」, 『진단학보』 4호, 1936.

이상희, 『면양정 송순의 시가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이재수, 「면양정 송순-그의 문학시고」, 『사상계』 8월호, 1959.

이재원, 『면양정 송순의 한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21쪽.

이종건, 『송순의 시가론』,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39쪽.

\_\_\_\_\_, 「송순 시가의 풍월」, 『국제어문』2집, 국제대학 국어국문학과, 1981.

\_\_\_\_\_, 『면양정 송순연구』, 개문사, 1982.

임준성, 「면양정삼십영과 문화콘텐츠 활용」, 『우리말글』제 56집, 우리말글학회, 2012, 469쪽.

임형택, 「16세기 광·라 지역의 사림층과 송순의 시세계」, 『고전시가의 이념과 표상』, 1991, 421~428쪽.

정재호, 「〈면양정가〉의 국문학사상 위치」, 『고시가연구』 4집, 한국고시가학회, 1997.

- 정익섭, 『개고 호남가단 연구』, 민문고, 1975, 178쪽, 178, 189쪽.
- 조운제, 『조선시가사상』, 동광당서점, 1937.
- 조태성, 「면과 양, 두 개의 시선」, 『고시가연구』 2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2, 339쪽.
- 주 퇴, 『송순 한시의 표현적 특징과 주제 연구』, 가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 최상은, 「면안정 송순 시가의 미의식」, 『성대문학』 28, 성균관대학교, 1992.
- 최재남, 「송순 연구의 과제와 전망」, 『고시가연구』 1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7, 242쪽.
- 최한선, 「면안정 송순의 한시」, 『고시가연구』 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7, 2, 22~24쪽.
- \_\_\_\_\_, 『석천 임억령 시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35~139쪽.

투고일 : 2014년 7월 15일, 심사 : 7월 17일~8월 8일, 게재확정 : 8월 8일

<Abstract>

## Status and Problems of Song Soon's Poetry

Baek, Suk-ah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e and prospect of research on Song Soon's Sino-Korean poems. Mainly with regard to previous discussions centering on gasa Myeonangjeongga (俛仰亭歌), this study reviewed the outcomes of research related to Song Soon's Sino-Korean poems. This is for closer inquiry into his literary world, and for this purpose, we studied previous research on Sino-Korean poems.

Previous studies largely categorized discussions on nature into three groups: first, Sino-Korean poems written on nature; second, poems describing the manifestation of 'Dao道' in nature; and third, poems on pavilions and travels in nature. Besides, we reviewed studies on Song Soon's requiems(輓詩), farewell poems, and friendship poems, which were fewer than nature poems but still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in Song Soon's Sino-Korean poems.

First, it was found necessary to recognize the literary meaning and aesthetic characteristic of each poem classified by theme in research on Song Soon's Sino-Korean poems. With regard to the manifestation of 'Dao道' observed in his Sino-Korean poems on natural theme, poems in which 'Dao道' was manifested were mostly Sino-Korean poems on natural themes or for social criticism and therefore there should be renewed efforts to find the meaning. For this, each Sino-Korean poem needs to be classified by theme and its character and aesthetic consciousness need

to be pointed out adequately. Next, we discussed the necessity for discussing travel poems and pavilion poems classified by theme. In addition, given insufficient discussions on poems other than nature poems such as requiems, farewell poems, and friendship poems,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call people's attention to them. Song Soon's requiems and farewell poems have been little discussed separately so far, and occasionally they were covered together with nature poems or friendship poems. In this situation, researchers need to take interest in these types of poems and continue discussions steadily based on various materials.

When these research tasks are conducted, they may achieve a reflective search for the proper understanding of trend in research on Song Soon's Sino-Korean poems, and enhance people's interest in his poetry.

**Key words** : Song Soon, Sino-Korean poems, nature poem (Myeonangjeongga, pavilion poems, travel poems, manifestation of Dao), farewell poems, friendship poems, social poems

